

전남도 여순사건 첫 조사...피해·증언 접수

11월까지 시·군 민원실에 창구 특별법 대비 진실규명 자료 활용 피해자 배·보상, 지원과는 무관

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 유족 신고 창구'를 마련해 오는 11월까지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신고대상은 여수·순천 10·19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으로, 유족은 물론 경험자,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도내 거주자의 경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고, 타 시도 거주자는 전남도 자치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수·순천 10·19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

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전남도는 피해자와 피해 사실에 대한 유족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규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피해자 유족 등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국가차원의 진실규명에 대비하고, 많은 분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정확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최우선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총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법률지원 사업 지원,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생활지원금 지급 등이 담겨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내 업체 생산 유기질 비료 50%대서 70%로 지원 확대

전남도는 가축분뇨 등 자원순환 촉진과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남지역 업체가 생산한 유기질비료에 대한 공급 확대책을 마련했다.

11월 전남도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으로 해마다 약 48만4000t(958억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중 도내 생산업체의 비중은 5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은 도내 가축분뇨 처리와 타지역 가축분 퇴비 유입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비료 생산업체간 과잉경쟁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도는 내년도 유기질 비료 공급 시 전남지역 생산업체 제품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133억원의 자본이 지역에 투자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에서 발생한 44만8000t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도내 생산업체 제품을 구매할 농가에 포대당 200원 이상 우대 지원하고, 타지역 제품을 구입한 농가는 지역에 따라 농업분야 시·군 자체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지역 내 비료 생산업체가 없거나 비료 생산량이 적은 시군에 대해서는 인근 생산량이 많은 시·군과 자원 순환 촉진을 위한 상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권역별 유기질 비료 안정적 공급대책 회의와 농업인 교육에 나서고, 9월부터 이동장연합회 등 176개 농업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유기질비료 도내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동캠페인 등도 펼칠 예정이다.

이정희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업체가 생산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남사랑,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



전남도는 인구문제 관심 촉구와 인구 늘리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월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사랑, 내 직장 주소 갖기' 캠페인을 가졌다. <사진> 현재 전남은 인구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도내 18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놓인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청 공직자들이 우선순위에 인구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민과 함께 '전남애(愛) 살기 실천'을 유

도하기 위해 이날 전남도청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여름 더위를 겨냥해 제작한 카툰이 담긴 부채 홍보물과 사랑의 황금알(구운 계란)을 나눠주기 이벤트를 가졌으며, 내부 행정포털망을 통한 온라인 홍보 등 전남사랑 실천을 유도하는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14일까지 전남도청 운전도출에서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입상 우수

작품 30점을 선보이는 '출산장려 사진전'을 열어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메시지도 전달한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지역 사랑의 첫 걸음은 내 직장 주소 갖기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산하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전남사랑, 주소 갖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장마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집중방역

전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쥐, 해충 제거를 비롯 돈사 출입 시 손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전남도에 따르면 장마철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파리, 모기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장에 유입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4월부터 2회에 걸쳐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시설 점검을 마쳤으며, 홍보물을 활용해 차단방역에 대한 홍보도 펼치고 있다.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이달말까지 조속히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매주 수요일을 '축산환경·소독의 날'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농협 공동방제단과 방역기관의 소독차량 등 140여대를 총 동원해 소독을 지원하고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해충 제거에 나서고 있다. 사람과 직접 접촉이 잦은 어미돼지에 대해서도 지난 7월부터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방역 관리수칙을 전파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8월 전통주 곡성 '시향가 탁주' 선정

쌀·토란으로 빚은 막걸리



전남도는 8월을 대표할 남도 전통주로 곡성 토란으로 만든 농업회사법인시향가(주)의 '시향가 탁주' <사진>를 선정했다. 연간 2500t의 토란을 생산,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곡성의 대표 술이다.

토란은 칼슘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시켜 고혈압에 효과적이고,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한다. 또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돼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다.

'시향가 탁주'는 친환경 쌀과 황금빛 토양에서 자란 곡성 토란을 전통방식으로 빚은 알코올도수 8%의 프리미엄 막걸리다. 목 넘김이 부드럽고 청량감이 있으며 숙취의 주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들어가지 않아 일반 막걸리보다 숙취가 덜해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다.

양승희 대표는 전남과학대 대체의학과와 막걸리 학교 등에서 전통주 제조교육을 이수해 제4회 농식품 파란창업 아이다

어 공모전을 비롯 농업분야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강소농가 대상 컨설팅을 통해 토란을 활용한 가공품을 개발했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전통주는 농산물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창출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산업"이라며 "홍보·마케팅과 시설현대화를 통해 남도의 우수한 전통주를 즐길 수 있도록 판매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농수특산물 부산 시민 입맛 공략

롯데백화점에 직거래장터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전남 우수 농수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광복점은 전남도와 협력해 꾸준히 직거래장터를 열어 부산 시민에게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NC백화점 야탑점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판촉전을 가졌다. 상품은 여수 돌산갓김치와 나주 배즙, 광양 새싹인삼, 곡성 김치, 화순 기정떡·감자차·아로니아, 장흥 표고버섯, 영광 굴비·참기름·들기름, 장성

젓갈류, 신안 소금 등 전남 대표 농수특산물 100여 품목이다.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돼 가격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남도는 부산시민들이 직거래장터 이후 우수 제품을 다시 찾을 것을 대비해 사후 관리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자들에게 전남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 주소가 새겨진 명함을 배포해 소비자로 하여금 '남도장터'를 통한 지속적인 제품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향우들이 많이 참석해 그리운 전남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재부산향우회와 부산 도민명예기자단을 통해 행사 전반에 대한 SNS 게시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14일까지 교육생 20명 모집

전남도는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와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생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제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과 실습, 전문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용은 주로 ▲사회적경제·소셜미션의 이해 ▲비즈니스모델의 수립 ▲시장조사 및 사업아이템 발굴 ▲선배창업가 특강 ▲

사업계획서 작성(전문 멘토링) ▲창업자가 알아야 할 실무교육 ▲네트워크 등으로 편성됐다. 대상은 사회적경제와 창업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전남에 주소를 둔 고용보급 미가입 청년이다. 모집인원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30%에 한해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들의 접수도 함께 받고 있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상생나무로 제출(ssstreetree@naver.com)하면 된다. 창업 아카데미는 다음달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